

고전문학 제재의 교과서 수용과 교육적 인식에 대한 통시적 고찰

- <정과정>의 교과서 수용사 탐색을 중심으로

최 흥 원 (상명대)

< 목 차 >

- | | |
|-------------------------------------|------------------------|
| 1. 논의의 출발: 교과서 속 <정과정>을 다시 살피는 까닭 | 3. <정과정>의 국어교육 수용사의 탐색 |
| 2. 연구 방법론과 자료: 제재 수용사와 <정과정>의 자료 선정 | 4.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정과정>이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탐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가 단순히 당대 사실의 재구나 교재사의 복원에 있기보다는, 수록 과정에 작용했던 교육적 인식과 판단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규명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제재 선정과 수록 문제를 점검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어교육 관점과 인식에 새로운 자극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과서가 교육적 인식이 구현되고 외현화된 실체로서, 관점 반영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정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가 그 이후 수록되지 않는데, 수록과 배제에 관여한 요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정과정>은 작가와 생성 맥락에 대한 기록의 존재에 힘입어 고려시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수용되었다가, 갈래 중심으로 교과서가 편성되면서 고려속요의 부상, 향가계 가요로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된 특별한 역사적 이력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문학의 전통 차원뿐만 아니라, 갈래 바꾸기 등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교육적 접근이 시도되는 지점도 밝혔다.

이러한 <정과정>의 교재 수용사를 통해 교과서 수록이 당대 역사적 필요와 관점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며, 따라서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정과정>, 수용사, 국어교육, 고전문학, 국어 교과서

1. 논의의 출발: 교과서 속 <정과정>을 다시 살피는 까닭

주지하다시피 <정과정(鄭瓜亭)>은 고려 의종 무렵 동래로 유배 갔던 정서(鄭絃)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지은 노래로, 고려시가 가운데 작가, 창작 맥락, 노랫말의 자료를 정확히 전하고 있는 몇 안되는 작품에 해당한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 여러 관련 기록과 자료를 전하는 까닭에 초창기 국문학 연구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¹⁾, 그에 따라 이미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²⁾ 한편, 국어교육의 국면에서

1) <정과정>에 대한 초창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운제, 「高麗歌謠 眞勺의 詩歌名稱性」, 『신홍』 6, 신홍사, 1937; 이가원, 「鄭瓜亭曲의 研究: 鄭瓜亭曲에 대한 新考察의 再論」, 『成均』 4, 성균관대, 1953 등을 들 수 있다.

보자면 해방 직후 국어 교과서부터 지속적으로 수록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현재에는 거의 수록되지 않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국문학 차원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 또한 상당한 탓에, 더 이상의 새로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마저 불러온다. 국어교육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관심에서 멀어진 작품을 새삼스럽게 끄집어 들추어내는 것은 국어교육의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기까지 한다. 연구자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나 편력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목적과 입론 단계에서부터 많은 의구심을 만들어낸다.

<정과정>을 다시 살피는 까닭을 밝히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정과정>이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성과가 단순히 당대 사실의 재구나 과거의 교재사 복원에 있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국어교육 관점과 인식에 새로운 자극과 성찰의 동인을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그런 만큼 이 글의 결론이 <정과정>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선정과 수록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제재의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제재나 자료 차원의 특별한 관심 못지않게 수록 과정에 작용했던 교육적 인식과 판단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규명이 이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연구 과제와 목적은 국어교육에서, 특히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교재사, 수용사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국어교육의 교재사와 관련하여 이미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라는 프로젝트³⁾에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역사를

2) 그동안의 <정과정> 연구의 성과나 쟁점에 대해서는 정재호, 「<정과정>에 대하여」, 정병욱,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양대순, 「<정과정>의 종합적 고찰」,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사업지원의 일환으로 ‘근

통시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이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기초 연구에 힘입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현황을 밝힌 연구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⁴⁾ 그런데 통계적 수치와 실증적 접근이 강조되거나, 혹은 일부 반복 수록되는 제재에만 국한되어 교재론 차원의 폭넓은 접근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문학의 교육적 인식과 판단에 대한 통시적 고찰로 확장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당면 과제로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의 선정, 채택 작업이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재의 수록과 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과거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제재들의 교육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철저한 교육적 판단과 검증의 과정 없이 과거에 수록된 제재를 답습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적 인식과 가치에 대한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는 일은 현재의 교과서 개발에 계승의 새로운 동인을 제공할 수도,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서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국어 교과 외적인 여러 요구에만 휩쓸리는 현실에서 국어교육의 중요한 문제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하나의 의미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일의 시급함을 앞세운 나머지, 현재의 교육과정과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교육적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Ⅰ), (Ⅱ)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국어교육 100년사 Ⅰ, Ⅱ(윤여탁 외, 2006)』,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Ⅰ, Ⅱ(민현식 외, 2007)』가 간행되었다. 여기서 교육과정별로 수록 제재의 현황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 4) 조희정, 「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 검토」, 『국어교육연구』 1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5; 조희정서명희,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류수열, 「관동별곡의 교재사적 맥락」,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2. 연구 방법론과 자료: 제재 수용사와 <정과정>의 자료 선정

이 연구는 교과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물리적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 공식적이면서 권위적인 제도로서 강력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어교육의 수많은 현실적 과제를 제기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과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제공 및 재해석, 교수학습의 자료 제공 및 방법 제시, 학습 동기의 유발, 연습을 통한 기능의 정착 등이기보다는, ‘관점 반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⁵⁾ 교과서는 교육적 인식이 외현화되는 실체이며, 특히 수록 제재는 개발자를 비롯한 당대 사회의 요구와 가치가 개입·관여하여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수록 제재의 선정 문제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제재 선정의 과정에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 목표, 단원 체제와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갈래 및 시대적 다양성, 작자의 성별,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 요인 이외에도 개별 작품들의 수용사, 국어교육의 관점 변화와 같은 통시적 요인들도 이면에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특정 제재가 그동안 어떠한 요인과 관점에 따라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일은 과거에 대한 복고적 관심을 넘어 교과서 제재 선정과 같은 현재적 과제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고전문학의 교육적 인식과 관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정과정>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일찍이 고전문학 제재의 교과서 수록 맥락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어(문학)교육이나 교재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탐색한 연구들이 <관동별곡>, <도산십이곡>, <홍길동전>과 같은 이른바 정전급에 해당하는 작품을 제재

5) H. A. Greene & W. Petty, *Developing Language Skills in the Elementary Schools*, Allyn and Bacon Inc, 1975, 482-486면.

로 한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 속에서도 빠짐없이 수록되어 수용 맥락의 변화를 살피기에 효과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정 시기 교과서에 반복 수록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뤄지지 않는 제재가 있다면, 이러한 선택과 배제에 관여한 요소가 궁금해진다. 교과서의 수록과 배제를 가져온 요인에 대한 물음은 곧 그동안 제재의 어떤 지점에 주목해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요청한다. 제재의 선정과 배제의 과정에는 작품의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학이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입,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과 교재론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통시적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나아가 이는 국어교육의 역사를 재구하는 것이면서, 국어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고 제언하는 일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생각해보건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 끊임없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가, 이후 제4차 교육과정부터 수록되지 않고 있는 <정과정>은 적절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정과정>은 국어교육의 관점과 인식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에서 구체적인 대상이자 자료가 된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부터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과정>의 부침(浮沈)이 관심있게 살필 지점이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적 이력, 특히 자료의 한계를 동반한 실체의 탐색과 규명은 여러 어려움을 노정한다. 초창기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의 부재, 계획 및 제도의 빈번한 변경과 그에 따른 결과물과의 불일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기구, 단체, 개발자, 교과서의 잦은 변경과 교체는 자료와 기록의 확인과 같은 일차적 검토 자체를 어렵게 한다.⁶⁾ 표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관련 기구와 단체, 개인들의 역학관계 또

6) 한 예로 해방 직후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던 단체, 기구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존재해 왔다. ‘조선교육심의회’, ‘조선교육심사위원회’, ‘교육심의회’, ‘국어교과서 편찬 위원회’, ‘국어 교재 편찬위원회’, ‘국어 교본 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 ‘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덧붙여 해방 직후 출판계에서는 교재류가 ‘출판의 반’을 차지할 만큼 교과서를 비롯한 교

한 연구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심지어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인정되어 왔을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을 더욱 미궁에 몰아넣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의 태생적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서 <정과정>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보기로 한다.

3. <정과정>의 국어교육 수용사의 탐색

3.1. 문학사 공백의 대안과 교과서로의 진입

초창기 고전시가 연구에서 <정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차적으로 현전하는 고려가요 중에서 작가와 생성 배경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질에서 연유한다. 대부분의 고려가요의 경우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 생성 맥락을 재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데 반해, <정과정>은 『고려사』 등의 자료에 작자와 노래를 짓게 된 배경이 기술되어 있고, 이세현의 「소악부」에 한역된 자료까지 전하고 있다. “고려시가 가운데 문헌적인 뒷받침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며, 이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모로 논의”⁷⁾되어 왔다.

<정과정>이 초창기 국어 교과서부터 수록된 데에는 당시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 특별한 애정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인물 중의 하나로 조운제(1904-1976)에 주목하려 한다. 그동안 초창기 국어 교과서의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이병기(1891-1968) 혹은 이태준(1904-?)의 역할⁸⁾에 주목해 왔으나,

재류 개발에 앞장선 결과 수많은 검인정 국어교과서를 비롯한 민간 독본이 간행되기도 했는데, 검인정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기가 어려워 정확한 실체의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 혜안, 2005, 72면 참조.

7) 정재호, 앞의 글, I-178면.

8) 가령, 해방 직후 간행된 『중등국어교본』이 좌우익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조운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때가 국어 교과서를 처음 개발하고 이후 정전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시기인 만큼, 당시 교과서 편찬 과정과 배경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교과서 편찬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던 상황에서 국어 교과서 개발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어학회는 1945년 8월 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고 이어 9월 2일 교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재 편찬의 계획을 수립하였다.⁹⁾ 이후 학회의 최현배, 장지영이 미군정청 학무국 편수과의 담당자가 됨으로써¹⁰⁾, 미군정청으로부터 교과서 개발의 발행권을 넘겨받아 조선어학회가 개발하는 교과서는 국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마침내 미군정과의 공조 아래 『한글 첫 걸음』, 『초등국어교본』, 『중등국어교본』 등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당시 교과서 편찬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하였지만, 다른 기관에 소속된 외부 인사들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조선어학회가 10월 9일자로 제시한 『국어교본』 편찬위원의 명단은 이 같은 사정을 보여준다.¹¹⁾

조선어학회	김병제, 김윤경, 방종현, 장지영, 정인승, 이극로, 이희승, 최현배
다른 기관	박준영(한성상업학교), 조병희(경성서부남자초등학교), 조운제(진단학회), 양주동(진단학회), 윤복영(협성학교), 윤성용(수송국민학교), 윤재천(청량리국민학교), 이세정(진명고등여학교), 이승녕(평

것에 대해 이병기나 조선문학가동맹 부위원장이었던 이태준의 역할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3; 남민우,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2005 참조.

9)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 구성하고 교재 편찬」, 매일신보, 1945.9.3.

10) 최현배가 9월 19일 편수과장에 취임하고, 10월1일 장지영이 편수과장보로 학무국에서 일하게 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오천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4, 384면; 한글학회 편,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688면.

11) 조선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한글교수지침』, 군정청 학무국, 1945, 1-3면.

	양사범학교), 이태준(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이호성(서강국민학교), 이은상(국문학 저술가), 주재중(매동국민학교)	
기초위원	초등 국어교본	윤복영, 윤성용, 이호성(책임)
	중등 국어교본	이승녕, 이태준, 이희승(책임)
	한글 첫 걸음	장지영, 윤재천, 정인승(책임)
심사위원	방종현, 조병희, 주재중, 양주동, 이세정	

[표1] 『국어교본』 편찬위원 명단(1945.10.9.)

여기서 조운제는 진단학회를 대표하여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단학회 역시 해방 직후 교과서 개발에 앞장서서 미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역사, 지리 교과서 편찬을 위임받은 바 있다. 조운제는 진단학회를 대표하여 8월 27일 건준문화시설위원회(建準文化施設委員會), 9월 1일 교육응급대책위원회에 파견되며, 이후 9월10일-19일에 개최된 국어국사강습회에서도 활동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¹²⁾ 이처럼 조운제는 국어 교과서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던 바, 특히 고전문학 분과에서 일정 지분과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¹³⁾

조운제의 영향력은 교과서의 수록 글에서도 확인된다. 읽을 만한 좋은 글을 선별하여 수록하는 독본(讀本)의 성격을 지녔던 당시 교과서 체제에서, 『중등 국어교본(중)』에 「국어와 국문학(조운제)」, 『중등국어교본(하)』에 「국문학의 고전(1), (2)(조운제)」가 수록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는 교과서 전체에서 고전문학을 해설하는 유일한 글인 만큼, 고전문학 분과에서의 영향력을 짐작케

12) 이러한 당시 활동 기록은 진단학회, 「진단학회 50년 일지」, 『진단학보』 57, 진단학회, 1984, 250면 등에서 확인된다.

13)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 이외에도 조운제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학무국의 자문 전담 기구로서 ‘조선교육심의회’가 있었고, 제9분과 ‘교과서분과위원회’는 최현배, 장지영, 조진만, 조운제, 피천득, 황신덕, 김성달, 웰처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 교과서 분과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한자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끝까지 반대하였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조운제,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문제」, 『조선교육』 제1권 제2호, 1947; 박봉배, 『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516-522면 참조.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중등국어Ⅵ(문교부, 1948)』 교과서에도 조운제의 「가시문학론」과 「은근과 끈기」 두 편이 동시에 수록된다. 한 권의 교과서에 두 편의 글이 수록된 유일한 저자라는 사실이 영향력을 방증해준다. 이후 1953년에 발간된 『고등국어』에서도 이 두 편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정과정>에 대한 조운제의 인식이 궁금해진다. 조선 시가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서술로 평가받는 『朝鮮詩歌史綱(1937)』을 들춰보면, <정과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문으로 표기된 문학에 주목했던 탓에, 고려시대를 ‘한역의 힘을 빌어 그 생명을 보존’¹⁴⁾했던 ‘위축 시대’ 혹은 ‘침체기’로 보고, ‘시가의 한역시대’로 명명한 것이 눈에 띈다. “향가를 바탕으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왔던 고대 문학이 중세 고려시대에 이르러 매우 빈한한 상태로 떨어지게”¹⁵⁾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정과정>은 향가의 쇠퇴 이후 우리말 노래의 위축과 그에 따른 공백 상황을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20년대 이래 향가 연구가 시작되면서 통일신라시대까지 고유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 활동으로 기술했던 노력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한문산문과 한시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과 마주하게 되면서 봉착하게 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가요 속에 상호 이질적인 시가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장르 개념으로서 불분명했던 사정¹⁶⁾과도 관련된다. 다음은 이 책의 목차 중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4) 조운제, 『朝鮮詩歌史綱』, 동광당서점, 1937, 88면.

15) 김승우, 「김태준의 詩歌史 인식과 高麗歌詞」,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358면.

16)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김학상·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201면. 이러한 특질로 인해, 속요는 “고려 때 노래로 추정되면서 양식상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말 노래를 통틀어서”(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2015, 230면) 지칭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제3장 시가의 한역시대

제1절 시대의 개관	제2절 향가의 편영(片影)
제3절 진작과 정과정곡	제4절 경기체가의 성립
제5절 충렬왕조의 가단	제6절 시조의 발생
제7절 한역가	제8절 고려의 속악

8개의 절 가운데 개별 작품명이 등장하는 경우는 <정과정>이 유일하다. 이는 앞선 향가시기에서도 개별 작품명이 제목 차원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과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작품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高麗에는 鄉歌의 뒤를 이어 일은時代에 眞勻이라는 詩歌文學이 發達한듯하나 지금은 거의 그것이 泯滅하여버리고 그 類歌의 鄭瓜亭曲만이 호음로 의떠러져 셋별같이 애처롭게 반짝이고 있음으로 오늘날은 그 名稱의 存在까지도 世上에서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眞勻과 鄭瓜亭曲을 併論하여 眞勻의 존재를 밝히고 동시에 鄭瓜亭曲을 紹介하려한다.”¹⁷⁾ (밑줄 및 강조: 연구자주)

<정과정>을 진작(眞勻)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유일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셋별같이 애처롭게 반짝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악학궤범』 권5에서는 <정과정>에 대해 ‘삼진작(三眞勻)’이라 하고 있고, 『대악후보(大樂後譜)』에서도 ‘眞勻 一 · 二 · 三’으로 표기하는 만큼, <정과정>류의 시가를 지칭하는 새로운 갈래로서 ‘진작’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명칭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곡(曲)’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정되었으나, 적어도 이 책에서는 고려 전기의 ‘공백기’ 내지 ‘침체기’를 메울 수 있는 노래이자, 한국문학사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고려가요 가운데 작자와 생성맥락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 고려시대의 노래로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17)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동광당서점, 1937, 96면.

이로 인해 <정과정>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면서, 한국문학사에서 신라와 조선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적 실체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이 이후 지속적인 교과서 수록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과정>은 고려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역사적 실체로서 ‘고전’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중등국어교본』에서 고전시가로 고시조와 <농가월령가>만을 수록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후 발행된 국어 교과서에서는 <정과정>이 지속적으로 수록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별도의 단원 편성 없이 개별 제재들이 나열되는 독본식 교과서 체제에 연이어 수록되면서, 그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다.

서지사항 (초판 발행연도)	발행 시기	단원	단원 구성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
문교부, 『중등 국어Ⅵ』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 4.25.	8. 정과정	소단원 편성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가시리, 관동별곡, 상춘곡, 태평사, 유산가
문교부, 『고등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3. 3.31.	6. 정과정	소단원 편성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가시리, 관동별곡, 상춘곡, 태평사, 유산가

[표2] 초창기 국어 교과서의 <정과정>의 수록 현황

3.2. 10구체 향가와 의 연속성 강조와 정전화

초창기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정과정>은 국어 교과서에 진입하게 되고, 이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수록되는 과정을 통해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서지사항(출판사)	대단원명	동일 단원 내 수록 작품
1차	문교부, 『고등학교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우리의 고전문학	춘향전, 관동별곡, 상춘곡, 태평사
2차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고전문학의 감상	춘향전, 관동별곡, 상춘곡
3차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고전의 세계	관동별곡, 춘향전, 학문(베이컨)

[표3] 제1차-제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정과정> 수록 현황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는 모습은 당시 국어교육에서 <정과정>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¹⁸⁾ ‘민족의 고전’이라 불리는 <춘향전>, <관동별곡> 등과 나란히 수록되는 모습은 <정과정>의 위상과 평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고전’의 대단원 속에 수록된 점은, <정과정>이 ‘고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식,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2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Ⅲ』의 ‘고전문학의 감상’이라는 대단원 속 도입글은 <정과정>의 수록 맥락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고전과 친근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자연적이며 낙천적인 기풍과 은근하고 애뜻한 정서 속에 심취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작품엔 그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려의 중 때의 가사로서 정과정곡을, 조선 영정 때의 작품으로 추상되는 춘향전을, 선조 때의 가사인 관동별곡을, 성종 때의 가사인 상춘곡을 읽음으로써 그 시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은 물론, 작자들의 사상 감정을 맞볼 수가 있을 것이다.

18) 교과서 자료 이외에도 1973년 대입 예비고사에서 <정과정>이 출제된 사실을 전하는 기사(동아일보, 1973.11.17)를 통해 당시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특색과 문체와 내용 등에 관하여 잘 살펴보도록 하자.¹⁹⁾

창작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 만큼, 작품의 문학적성 못지않게 정확한 창작 시점의 확정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창작 시기가 불분명한 <춘향전>조차 영·정조 때의 작품으로 명확히 기술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건대 <정과정>은 『고려사』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이 다른 고려가요 작품들에 대해 비교우위로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²⁰⁾ 한편,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관동별곡>, <춘향전> 등과 함께 수록되는데, 이들이 각각 조선 전·중기와 후기 작품이면서 각각 시가와 산문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에서²¹⁾, <정과정>이 고려 이전 시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심과 인식을 학습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제 2차,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해당 학습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제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3. <정과정>의 형식상 특징을 살펴보다.	1-1. 이 글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다.
4. <정과정>에 담긴 정조와 그것을 나타	2-1.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19)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8, 214면.

20) 문헌기록상으로는 정서가 동래에 유배당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정확한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한다. 참고로 의종 24년 9월-10월 사이(이가원, 『鄭瓜亭曲 研究』, 『韓文學研究』, 탐구당, 1969), 의종 5년-24년 사이(양주동,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22면; 장덕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60, 114면), 혹은 의종 10년 전후로 달리 재구할 만큼(권영철, 『鄭瓜亭歌新研究』, 황폐강박노준임기중 편, 『鄉歌麗謠研究』, 이우출판사, 1985, 415-418면) 차이가 크다.

21) 함께 수록되어 있는 <관동별곡>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 때까지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에서 부동의 고전으로 군림하고 있는 작품”(류수열, 앞의 글, 123면)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과정> 또한 이에 상응하는 위상을 가졌음을 짐작케 한다.

<p>낸 용어를 생각하며 읽어보라.</p> <p>5. '가시리 평설'과 이 노래를 다시 읽어 보고, 고려시대의 노래의 특징을 생각해 보라.</p>	<p>2-2.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아 보라.</p> <p>2-3. 다음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가) 산(山) 접동새 (나) 殘月曉星(잔월효성)</p> <p>3-1. 선인(先人)이 물려준 것을 소중하게 알도록 하자.</p> <p>4-1. 다음 한자를 익히자. 曉</p>
---	--

[표4] 제2차, 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정과정> 학습활동

주제나 정서보다 형식의 탐구를 앞세우는 것에서 보듯, 10구체 향가를 계승하는 형식적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 일찍이 『조선시가가사강』에서 언급되었던 10구체 향가와 유사성²²⁾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고 있는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윤제의 「국문학의 발달 (1), (2)」에서는 <정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10구체 향가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과정곡, 동동,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석가, 가시리, 정읍사 등은 현존하는 작품의 몇 예다. 이 가운데 정서의 정과정곡은 10구체 향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²³⁾

조윤제는 <정과정>의 형식에 대해 본가를 전체 10구체로 보고 끝에 나오

22) “첫째로 眞勻鄭瓜亭曲은 樂學軌範에 傳하였으나 이것은 益齋集小樂府에 漢譯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高麗當時에 口傳하여 왔던 것이 事實이고, 또 그形式이 鄉歌의 十句體歌에 近似하다는 것에 新羅系統의 詩歌文學이 高麗朝에 들어와서 全然 그發達이 停止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동광당서점, 1937, 51면.

23)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5, 194면.

는 2구를 향가의 낙구로 규정한 바 있다. 이때의 2구는 “니미 나룰 흐마 니
 즈시니잇가 아소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과정>
 의 형식을 10구체 향가에서 연유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규정은 10구체 향가와의 관련성에만 주목하여 10구체 향가가 전8구와 후2구
 로 나누어지는 형식에 얽매인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²⁵⁾ 오늘날 낙구를
 감탄사 ‘아소님하’ 이하로 보고 전체 형식을 11구체로 보는 것과는 분명 차
 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정과정>의 교육 내용이
 이처럼 10구체 향가와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를 넘어 작품의 외적 배경에 대한 탐
 구까지 요청하고 있다. <정과정>이 작자와 창작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작
 품인 만큼, 생성 맥락에 대한 이해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
 가요 대부분이 작자와 창작 시기를 재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 것과 대비
 된다.

“이들은(고려의 시가-연구자주) 그 作者와 著作年代가 모다 不明한 것으로,
 말하자면 누가 지은지도 모르게 民間에 口傳하여 오다가 後世에 國字가 發
 明이 되니 비로소 文字上에 再現된 것이다.”²⁶⁾

3. 3. 귀속 갈래상의 미아와 교과서에서의 퇴장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록되던 <정과정>
 은 제4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교과서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제4
 차 교육과정이야말로 이른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본다면, <정과정>의 탈락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공무도

24) 조운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100-101면.

25) 정재호, 앞의 글, I-85면.

26) 조운제, 『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49, 53면.

하가>, <찬기과랑가>, <우중문에게 주는 시> 등이 새롭게 등장한 것보다 분명 구별되는 장면이다. 교과서 전체에서 <정과정>에 대한 언급은 조운제의 <고전 문학사(1)>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는 데 그칠 뿐이다.

“이 가운데 정서의 정과정곡은 10구체 향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²⁷⁾

이 시기 교과서에서 주목할 특징은 갈래 중심의 편성 체제이다. 당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교과서도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과 같은 문종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고,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수필, 시와 같이 역사적 갈래에 따른 단원 체제 속에 수록, 편성된다. 다만, 고전문학의 경우 ‘9. 시조(고등학교 국어(1))’, ‘5. 시조와 가사(고등학교 국어(2))’와 같이 시조, 가사만을 대단원으로 설정할 뿐, 고려 이전의 시가들은 모두 ‘시(2)’ 단원으로 묶어서 편성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고대가요, 향가, 속요, 한시와 같이 각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14. 시(2)

(1) 공무도하가 (2) 찬기과랑가 (3) 청산별곡 (4) 사모곡 (5) 우중문에게 주는 시 (6) 가을밤에 비 내릴 때 (7) 입을 보내며

수많은 작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에도 유독 <정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널리 수록되던 <정과정>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배제된 이유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가와 시조를 이어주는 연결자로서 <정과정>의 존재적 특질은 갈래의 성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향가, 혹은 고려속요 그 어느 갈래에도 귀속되기 어려운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향가의 형식을 계승하되 향찰로 표기되지 않았고 형태상 변화가 있으며, 고려시대의 노래이긴 하지만 민중이 아닌 귀족에

27)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국어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304면. 참고로 이 글은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1』 교과서에 수록된 <국문학의 발달>과 큰 차이가 없다.

의해 창작된 사실 등이 기존 갈래에 귀속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²⁸⁾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정과정>은 10구체 향가의 “고정된 격식에서 벗어나 아주 자유 분방하게 화자의 심경과 생각이 개진되고 있다”²⁹⁾는 점을 근거로 새로운 국면을 지향한다고 보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미 제3차 교육과정의 일부 『고전문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귀속갈래상의 혼란함은 갈래 중심의 편성에서 <정과정>이 배제되는 결과를 예고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고전문학』 교과서가 별도의 중단원 없이 고려시대 문학 작품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데 반해, 아래 두 교과서는 갈래를 나타내는 중단원 속에 해당 작품을 배치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과정>을 수록하는 단원에 차이가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

서명(저자)	고전(한원영)	고전(김기동, 정주동, 정익섭)
출판사	삼화출판사	교학사
대단원	Ⅲ. 중세문학	Ⅳ. 고려 시대의 고전
단원 구성	3. 속요 가시리, 청산별곡, 상저가, 유구곡 4. 경기체가와 향가계 가사 한림별곡에서, 정과정	Ⅱ. 서민들의 가요 1. 상저가 2. 청산별곡 3. 동동 4. 정과정곡

[표5] 제3차 교육과정 『고전』 교과서의 <정과정> 수록 단원

두 교과서에서 <정과정>은 각각 ‘향가계 가사’와 ‘서민들의 가요’ 속에 달리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정과정>을 ‘서민들의 가요’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밖에도 제4차 교육과정 『고전문학』 교과

28) 10구체 향가와와 관련성 측면에 대해 10구체 향가의 양식적 특질이 지나치게 많이 파손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과정>을 10구체 향가와 기존 민요의 장르 복합에 의해 창출된 양식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대두되었다.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출판부, 1987, 48-48면.

29) 박노준, 「<鄭瓜亭曲>의 역사적 배경」, 『高麗歌謠의 研究』, 새문사, 1990, 362면.

서에서 <정과정>이 언급되는 장면도 귀속 갈래에 대한 혼란함을 보여준다.

2. 고려속요

현재 전해지는 속요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동동, 정과정, 처용가(이상 악학궤범), 가시리(이하 중략)

3. 향가계 시가와 경기체가

이들 노래(보현십원가, 도이장가-연구자주)와 같이 향찰로 기록된 것은 아니나, 향가와 유사한 형식의 노래로 정서의 정과정곡이 있다. 이는 향가와 고려속요의 중간에 위치하는 작품으로, 고려속요의 발생 과정을 알려 주는 작품이다.³⁰⁾

이처럼 ‘향가계 시가’와 ‘고려속요’를 구별하여 별개의 중단원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과정>에 대해 고려속요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고 “향가와 고려속요의 중간에 위치하는” 향가계 시가로도 설명하는 모호성이 발견된다. 심지어 “고려속요의 발생 과정을 알려주는 작품”으로 잘못 이해되는 모습도 보게 된다.

사실 고려속요의 장르적 본질에 비취볼 때 <정과정>은 고려속요에 포함되기 어려운 작품이다. 고려속요의 범위와 자료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정과정>은 ‘사뇌가계 궁중무악 또는 연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속요에서 제외된다.

“사뇌가라는 역사적 장르가 그 생명력을 다해가는 소멸기이자 속요라는 새로운 장르가 형성되어가는 이행기의 작품으로서 양쪽의 장르적 성향을 혼호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뇌가의 형식적 특성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므로 사뇌가의 잔영으로 다루는 것이 온당하므로 속요에서는 제외된다.”³¹⁾

이러한 설명에 따른다면, 고려속요는 당대의 민속가요인 민요, 무가, 불가

30) 박갑수이철수, 『고전문학』, 지학사, 1985, 35면, 48면.

31) 김학성, 『속요란 무엇인가』, 국어국문학회 편, 『고려가요·악장 연구』, 태학사, 1997, 14면.

를 궁중의 속악가사로 개편, 전용하는 과정에서 생성, 발전된 노래이며, 따라서 개인의 창작시로서 <정과정>은 이러한 속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일찍이 고려가요 가운데 <정읍사>, <정과정>, <사모곡>을 묶어 ‘별곡’과 구별하여 ‘전별곡적’³²⁾ 형태라 칭했던 것도, 다른 고려속요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질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정>을 고려속요의 하위 노래로 포함시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두고서 작가가 분명한 <정과정>을 전래하던 민요의 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려가요가 민요라는 판단 아래 행해진 의도적 오류라는 지적³³⁾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정과정>의 배제와 교과서에서의 퇴장은 국어 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선택과목 『고전문학』 교과서에서도 <정과정>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로 고려시대 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	김기동·박준규	김성배·진태하	박갑수·이철수	이상익·김진영
출판사	교학사	문호사	지학사	동아서적
단원명	Ⅲ. 고려 시대의 문학	Ⅱ. 고려 시대의 문학	Ⅱ. 고려의 문학	Ⅱ. 고려의 문학
단원 구성	1. 고려 문학의 전개 2. 향가계 가요와 경기체가 (1) 도이장가 (2) 한림별곡 3. 평민들의 속요 (1) 정읍사 (2) 동동	1. 민중의 가락 (1) 정읍사 (2) 동동 (3) 청산별곡 (4) 가시리 (5) 상저가 2. 사대부의 노래 (1) 한림별곡	1. 고려 문학의 개관 2. 고려속요 (1) 청산별곡 (2) 동동 (3) 정석가 (4) 가시리 3. 향가계 시가와 경기체가	1. 향가·향가계 시가 (1) 예경제불가 (2) 도이장가 2. 경기체가·고려속요 (1) 한림별곡 (2) 동동 (3) 청산별곡

32)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33) 이임수, 『麗歌의 향유층 및 작가의식』, 국어국문학회 편, 앞의 책, 80면.

	(3) 청산별곡 4. 시조 5. 가전의 세계 (1) 죽부인전 (2) 정시자전 6. 한문학 (1) 산중사 (2) 송인	(2) 시조	(1) 도이장가 (2) 한림별곡 4. 시조문학 靑山에 / 白雪이/ 興亡이 / 이런들 5. 서사문학 (1) 배열부전 (2) 국선생전 6. 한문학 (1) 산거 (2) 제승사 7. 고려의 국어	(4) 상저가 3. 시조① (1) 탄로·우국의 노래 4. 설화② (1) 강감찬 (2) 오수 5. 한문학② (1) 송인 (2) 국순전
--	---	--------	---	---

[표6] 제4차 교육과정 『고전문학』 교과서 속 고려시대 부분 단원 편성

위 표는 고려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갈래로 고려속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과정>의 소외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갈래로 고려속요가 부상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초창기 국어 교과서에서 고려속요는 정확한 창작 시기를 재구하기 어렵고 전승과 기록의 과정에서 야기된 변화마저 존재하는 까닭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면 “고려조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평민문학으로서 발흥한 속요”³⁴⁾가 되어 상대적

34) 김성배·진태하, 『고전문학』, 문호사, 1985, 34면. 참고로 고려가요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도 이전과 구별되는 가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고려가요는 국문학사상 우리나라 민중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이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 생활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실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당시의 민중의 정서 생활을 오늘에 비추어 살펴보자. (중략) 이러한 참담했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으로 <정과정>은 밀려나고 만다. 고려시대 문학을 민중의 문학사로 규정하고 살필 경우, 귀족이라는 작자의 신분과 충신연주지사로서의 노래 성격은 수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3종의 고전문학 교과서에서 고려속요와 구별하여 ‘향가계 가요(시가)’를 별도의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조차 향찰로 표기되어 전하는 <도이장가>가 <정과정>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면서 모두 <도이장가>를 수록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정과정>을 사뇌가 또는 사뇌가의 잔존 형태가 아닌, 새로운 고려가요³⁵⁾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건대 갈래상 고려속요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가계 가요(시가)로서도 불완전했던 존재적 특질이 갈래 중심의 편성에서 배제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4. <정과정>의 부상(浮上) 가능성과 과제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배제된 이후, <정과정>은 국어 교과서에 선정, 수록될 기회를 잃고 만다.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의사소통능력이나 기능주의로 대표되는 국어교육의 새로운 관점이 도입정착되면서, 국어 교과서에서 고전문학의 비중 자체가 대폭 축소되고 <정과정>의 수록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고 만다. 물론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교육에서의 완전한 배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전’과 ‘실라버스’를 구별한 존 길러리(John Guillory)에 따르면, 실라버스는 특정 제도적 맥락에서의 학습용 텍스트를 선별한 것인 만큼, 어디까지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텍스트의 목록일 따름이다.³⁶⁾

지 못하고 그대로 순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가요에는 귀족 계층이 아닌 서민들의 애환과 당시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솔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김성배, 진태하, 앞의 책, 36면)

35) 구체적으로 ‘11구 형식’, ‘4분장 형식’, ‘연장체적 성격’ 등이 10구체 향가와는 구별되는 요소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양태순, 「<鄮瓜亭(眞句)>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에서 <정과정>의 위상이 궁금해진다.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II』의 한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대단원명: 5. 과거와 현재가 맞잡은 손

[1] 문학의 전통-(1)<정과정>

□ 관련 성취기준: [문학] (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 학습목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 전통의 전승 양상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학습활동

1. <정과정>과 시조 두 편을 감상하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화자의 측면에서 <정과정>에 나타난 시가 문학의 전통을 이해해 보자.

(1) 다음을 참고하여 <정과정>의 작가와 화자를 파악하고, 임과 노래의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2) <정과정>의 작가가 (1)과 같이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3)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가 문학의 전통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현대시 중에 이러한 전통이 계승된 작품을 더 찾아보자.

3. 형식적 측면에서 시가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알아보자.

(1) 10구체 향가와 <정과정>의 형식적 공통점을 찾아보자.

(2) <정과정>의 형식적 전통이 시조 두 편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³⁷⁾

표면적으로 볼 때 <정과정>의 가치를 여전히 역사적 실체로서의 전통 차

36)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3, 56면.

37) 이승원 외, 『고등학교 국어 II』, 좋은책 신사고, 2015, 176-177면

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인식과 그리 멀어보이지는 않는다. 제재 선정의 맥락과 근거가 어디까지나 충신연주지사, 여성화자, 3단 구성과 같은 전통의 특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와 화자를 파악하고 임과 노래의 주제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구안함으로써 표현 전략과 효과까지 탐구하는 점은 분명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관점이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연관성 혹은 갈래와 같은 통시적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체 중심의 문학관이었다면, 현재의 학습활동에서는 이러한 문학관에 더해 화자와 같은 구성 요소로 문학을 설명하는 속성 중심의 문학관이 추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³⁸⁾ 나아가 형식적 측면에서도 10구체 향가와외의 관련성을 넘어 이후의 시조 초중중장의 구성과 연결지어 시가 문학의 전통 차원으로 확장하는 특질을 보인다. 10구체 향가를 중심으로 3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뉘는 형태에 주목하고, 이를 시조의 3장 구성과 관련짓는 논의를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여기서도 한계와 제약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학 작품을 실체나 속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머무름으로써 <정과정>의 감상과 경험이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 실제로 <정과정>은 임의 부재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래이며, 소망을 언어화함으로써 심리적 해소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과 심리적 해소의 과정은 임의 부재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⁴⁰⁾ <정과정>의 이러한 특질은 작품의 감상과 수용,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와 성찰의 경험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기존의 국문학 연구에서 도출된 실체와 속성 차원의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머무르는 교육과 대비되면서 그 한계를 일깨운다.

3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25면.

39) 김병국, 「시조 발생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42-251면.

40) 엄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94면.

문학 교과서로 확장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두 종의 문학 교과서에 보조자료로 등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모두 <속미인곡>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시적 화자의 특질을 비교하고, 이를 한국문학의 전통으로 확장하여 탐색하는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읽고, 두 작품에서 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자.⁴¹⁾

- (1)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와 (가-<정과정>), (나-<해당화>)의 시적 화자를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 작품의 공통된 정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2) (1)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 보고, 현대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와 같은 특질이 나타나 있는 작품을 찾아 발표해 보자.⁴²⁾

이들 모두 여성화자의 특질, 한국문학의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국어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님을 대하는 태도와 화자의 정서를 읽어낼 것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의 국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만하다. 사실 <정과정>은 “약속을 어긴 입에 대한 강한 감정 표시, 무고함의 반복 강조, 억울함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의 표시, 그를 잊고 있는 입에 대한 원망 등 온통 애통 절통한 사설로 꽉 채워져”⁴³⁾ 있는 작품이다. 유사한 상황의 <전후 사미인곡(前後 思美人曲)> 두 편과 비교할 때 이러한 성격은 보다 분명하다. 정서와 표현상의 이러한 특질을 고려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과정>은 독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구차스러운 애절에 그만 역겨움을 느끼게 하여 심기를 흔들어 놓기도”⁴⁴⁾ 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창작시였음에도 불구하고

41)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5, 169면.

42)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5, 139면.

43) 박노준, 『향가어요 중형론』, 보고사, 2014, 294면.

44) 박노준, 앞의 책, 295면.

궁중에서 노래 불린 사실에서 미루어보건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⁴⁵⁾은, 작품의 이해를 넘어서 수용과 평가 활동까지 이끌어내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정과정> 감상의 특질이자, 새로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다음은 2009 문학 교과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형식과 갈래 바꾸기 문학의 형식은 문학을 문학답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서 시의 경우 행과 연의 구분뿐만 아니라 운율, 이미지, 어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소설에서는 인물, 배경, 플롯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형식을 바꾸거나 혹은 문학의 갈래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원래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새롭게 변환하는 것도 작품의 창조적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이다.

날마다 님 생각에 울며 옷깃을 적시니	憶君無日不霑衣
님 모습은 봄날 동산에서 우는 접동새 같아라.	政似春山蜀子規
내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묻지 마소.	爲是爲非人莫問
새벽달과 별만은 응당 알리이다.	只應殘月曉星知

<정과정>은 10구체 향가 형식을 가진 속요인데 이제현은 이 작품의 앞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취하여 한시의 형식으로 바꾸어 재창작하였다. 그럼으로써 고려 속요와는 달리 한시의 엄격성을 바탕으로 입을 향한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⁴⁶⁾

<정과정>이 한국문학의 전통 차원에서 다뤄진 것과 달리, ‘형식과 갈래 바꾸기’에 대한 자료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기존의 한국문학사의 흐름과 전통이 아니라 문학의 생산 영역을 구현하기 위한 맥

45) 김대행, 『한국의 고전시가』, 이화여대출판부, 2009, 50면.

46)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1』, 미래엔, 2012, 224면.

락에서 수록된 것이다.⁴⁷⁾ 이는 기존의 실체, 속성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체 문학을 감상하고 생산하는 활동 차원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특히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쉬운 고전문학을 두고서 생산 활동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과정>의 교육적 인식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여기서 교과서 수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그동안 교과서에서 <정과정>에 주목했던 부분들은 곧 국어교육의 역사적 궤적이자 변화를 드러내는 표지라 할 수 있다. <정과정>은 작자와 창작 맥락에 대한 기록의 존재에 힘입어 고려시대 작품으로 확정된다는 사실로 교과서에 진입,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말 문학의 위축으로 규정된 고려시대 문학사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그 공백을 메우는 작품으로 주목받은 것이다. 이어 10구체 향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형식적 특질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속요 갈래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정과정>은 경쟁력을 잃고 밀려나고 만다. 향가계 가요와 같은 중간적 성격, 또한 향가계 가요로서도 불완전한 성격 등으로 인해 갈래 중심의 편성에서 소외,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정과정>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어디까지나 갈래, 문학사 차원에만 머물렀던 사실에서 초래된 결과이다.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정과정>의 특질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갈래적 측면, 문학사의 측면에서의 논의를 답습하는 데서 예고되었던 결론인 셈이다.

47) 해당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문학의 생산 ①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②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최근 들어 <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관심이 제기되고, 여성화자의 표현 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전통을 탐색하는 새로운 내용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과정>이 국어교육에서 보다 의미있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정과정> 감상 경험의 특질이 새롭게 밝혀져야 한다. 형식과 갈래 바꾸기의 자료로 활용되는 모습은 <정과정>의 새로운 교육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정과정>의 교과서 진입과 정전화, 감각스러운 배제와 퇴장, 그리고 새로운 부상의 가능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제재의 교육적 가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던져준다. 제재의 교과서 수록이 어디까지나 당대 역사적 필요와 관점에 의한 선택일 뿐, 필연성과 자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운다. 이른바 고전(canon)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절로 고전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특히 교육제도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에 지배적인 가치가 부여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고정 불변의 보편적 가치를 시사하는 고전조차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담론 투쟁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축된 산물일 따름이다.⁴⁸⁾ 이런 점에서 보건대 고전으로서 추상적, 당위적 차원의 가치나 위상을 선언하기보다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탐색이 <정과정> 교육 연구에 요청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의 목표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관심과 성찰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정과정>의 수용사 탐색이라는 작은 논의에서 출발하

48) Haruo Shirane 외, 創造された古典: カノン形成・國民國家・日本文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일본문학의 정전 형성과 근대 그리고 젠더』, 소명출판, 2002, 5면, 9면. 이 책에 따르면, 서양의 정전 이론은 크게 기본주의자(foundationalist)와 반기본주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입장이 정전 텍스트가 보편불변의 절대적인 가치를 체현하고 있다는 데 반해, 후자는 정전으로 선별된 텍스트는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 혹은 사회 집단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aruo Shirane 외, 앞의 책, 18-19면. 이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여 국어교육의 관점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같은 큰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다. 연구의 도달점과 궁극적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과정>은 하나의 사례와 자료에 불과하며 이후 수많은 제재를 대상으로 한 일반화의 과정을 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과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국어교육의 공학론적, 방법론적 논의만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당한 방향성으로 평가되는 편향된 인식이 수정되고, 제재의 수용사 연구가 미래의 국어교육 설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감히 욕심내본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어교과서>

-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상, 중, 하), 균정청 문교부, 1946-1947.
문교부, 『중등 국어Ⅵ』, 조선교육도서주식회사, 1948.
문교부, 『고등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4.
문교부, 『고등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9.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8.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5.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5.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국어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이승원 외, 『고등학교 국어 Ⅱ』, 좋은책 신사고, 2015.

<기타 교과서>

- 김기동·정주동·정익섭, 『고전』, 교학사, 1968.
한원영, 『고전』, 삼화출판사, 1968.
김기동·박준규, 『고전문학』, 교학사, 1985.
김성배·진태하, 『고전문학』, 문호사, 1985.
이상익·김진영, 『고전문학』, 동아서적, 1985.
박갑수·이철수, 『고전문학』, 지학사, 1985.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Ⅰ』, 미래엔, 2012.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5.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5.

<교육과정> 및 기타 자료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6호, 1955.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1호, 1963.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 1974.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편,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
 진단학회, 「진단학회 50년 일지」, 『진단학보』 57, 진단학회, 1984.
 한글학회 편,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매일신보, 1945. 9. 3.
 동아일보, 1973. 11. 17.

2. 논저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권영철, 「鄭瓜亭歌新研究」, 황패강박노준임기중 편, 『鄉歌麗謠研究』, 이우출판사, 1985.
 김대행, 『한국의 고전시가』, 이화여대출판부, 2009.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4.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0.
 김동환, 「문장」지와 국어교육,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7-39면.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김학상·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김병국, 「시조 발생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5.
 김승우, 「김태준의 詩歌史 인식과 高麗歌詞」,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349-386면.

- 김학성, 「속요란 무엇인가」, 국어국문학회 편 『고려가요·악장 연구』, 태학사, 1997.
-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출판부, 1987.
- 남민우,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2005, 267-296면.
- 류수열, 「〈관동별곡〉의 교재사적 맥락」,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435-464면.
- 문혜윤,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73-101면.
- 민현식 외,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Ⅰ, Ⅱ』, 서울대출판부, 2007.
- 박노준, 「〈鄭瓜亭曲〉의 역사적 배경」, 『高麗歌謠의 研究』, 새문사, 1990.
- 박노준, 『향가여요 종합론』, 보고서, 2014.
-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박상진, 「정전 (연구)의 새로운 지평: 정전성의 정치학」, 『민족문화연구』 5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1-46면.
- 양주동,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 장덕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60.
- 양태순, 「〈鄭瓜亭(眞勻)〉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양태순, 「〈정과정〉의 종합적 고찰」,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 염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Ⅰ, Ⅱ』, 서울대출판부, 2006.
- 이가원, 「鄭瓜亭曲의 研究: 鄭瓜亭曲에 대한 新考察의 再論」, 『成均』 4, 성균관대, 1953.
- 이가원, 「鄭瓜亭曲 研究」, 『韓文學研究』, 탐구당, 1969.
- 이성영, 「국어과 교재의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2, 국어교육학회, 1992, 71-92면.
- 이임수, 「麗歌의 향유층 및 작가의식」, 국어국문학회 편, 『고려가요·악장

- 연구』, 태학사, 1997.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 이중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 혜안, 2005.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 재론」, 『배달말』 50, 배달말학회, 2012, 197-222면.
-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3.
- 정재호, 「<정과정>에 대하여」, 정병욱,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2015.
- 조윤제, 「高麗歌謠 眞勺의 詩歌名稱性」, 『신흥』 6, 신흥사, 1937.
- 조윤제,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한자 문제」, 『조선교육』 제1권 제2호, 1947.
-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동광당서점, 1937.
- 조윤제, 『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49.
-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 조희정, 「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 검토」, 『국어교육연구』 1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5, 85-122면.
- 조희정·서명희,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415-458면.
-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 수록의 이면과 그 배경의 탐색」, 『문학교육학』 5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255-292면.
-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 한창훈, 「조윤제 초기 시가 연구의 특징과 그 성격」,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 허재영, 『국어과 교재 이해와 교과서의 역사』, 경진, 2013.

Apple Michael W., Official Knowledge, 박부권 외, 『학교 지식의 정치학』,
우리교육, 2001.

Greene H. A. & Petty W., Developing Language Skills in the Elementa
ry Schools, Allyn and Bacon Inc, 1975.

Shirane Haruo 외, 創造された古典: カノン形成・國民國家・日本文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일본문학의 정전 형성과 근대 그리고 젠더』, 소명
출판, 2002.

【Abstracts】

Diachronic Considerations about Textbook Reception and Educational Awareness of Classical Literature Materials

-Focusing on Explorations of Reception History of
<Jungkwajung(鄭瓜亭)>

Choi Hong-won

This study primarily aims at probing into how <Jungkwajung(鄭瓜亭)> was accepted in Korean education so far. However,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outcome of this study consists in clarifying diachronically educational awareness and judgment which affected the process of textbook inclusion rather than restoring the truth of the past or the history of textbook. That is to say,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checking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hoices of materials and inclusions in textbook, and providing the chances of new motivation and reflection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Korean education. The premise is that textbooks are the substances that educational awareness is implemented and externalized and they carry out the function to reflect perspectives.

<Jungkwajung(鄭瓜亭)> can be an effective material in that I raise a question about main caus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as the work that had been only included continuously until the third curriculum. I examined closely special history of <Jungkwajung(鄭瓜亭)>. The work

had been accepted early as the work to represent Goryeo(高麗) literature history by the record about the writer and the contexts of the work. However, the work disappeared in the textbook due to organization of textbooks as genres, advent of Goryeosokyo(高麗俗謠) and imperfection of songs of the line of Hyangga(鄉歌). I clarified the time when different educational approaches were attempted lately in not only changing genres but also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reception history of <Jungkwajung(鄭瓜亭)>, I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extbook inclusion is the result of choices according to historical needs and prospects, and thus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xplorations about educational values of text.

Key words : <Jungkwajung(鄭瓜亭)>, reception history, Korean language education, classical literature, Korean textbook

이 논문은 2017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